

다산포럼

한국형 약탈적 대출의 경고등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10월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인하함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의 비대칭적인 여수신 금리운용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예금에 대한 우대금리와 수신금리를 낮추는 반면, 여신금리는 그대로이거나 특히 대출가산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해 왔는데 연체이자는 요지부동이라는 점도 큰 불만의 대상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이나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 대부업계의 초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다. 거듭 반복되는 논란이다. 지난 8월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파문이 컸다.

많은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이를 약탈적 금리운용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때는 주는 이자는 적게 주고, 받아가는 이자는 많이 때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박탈감이나 분노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반면 시장경제 원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약탈적’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예금금리는 예금자의 문제이고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문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높은 예금금리를 원하고 후자는 낮은 대출금리를 원하는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며, 각각의 시장에서 양자 간의 격차가 정해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약탈적’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시장에서 행사하는 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어떤 개인 소비자도 금융회사의 금리정책에 맞설 수 없다. 이는 곧 한국의 금융시장이 독과점이 라는 것이며,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원리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지난 2013년 3월 신제운 금융위원

장이 취임에 부처 ‘약탈적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두 번째는 금리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달 초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 간 당정협에서, 그 직전 8월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농협, 하나, 기업, 외환 등 일부 은행들이 거꾸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여당 대표는 “금융기관이 대출자를 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를 인상한 은행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다”고 답했다. 이쯤 되면 금융소비자단체가 이야기하는 약탈적 금리운용은 금융회사와 정부의 합작품이지, 시장원리 운용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의 약탈적 금융행태가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mortgage)’이다. 애초 이 말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정상적인 소득으로 도저히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대출을 해주

고,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리앉자 담보로 잡았던 주택을 경매에 부처 버렸다. 이때의 약탈적이라는 뜻은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탈해간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은행에서 나간 52조 원 가까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목적의 비중은 46%에 불과했다. 54%는 생활비나 자영업의 사업자금에 쓰였다는 뜻이다. 주택 구입 목적에 쓰인 비중은 지난 수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통계에다가 자영업 월 평균 매출액이 2010년 대비 11%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와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영역인 여관·치킨집 등 숙박·음식업종의 5년 후 생존율이 17.7%에 불과하다는 중소기업청의 통계를 붙이면, 결국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의 이익을 위해 대출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담보를 챙기면 된다는 전형적인 약탈형 대출의 한국적 유형이 그려진다.

주택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받치려는 정부정책과 단기수익에 목매는 금융권의 또 다른 합작품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합작품이 초래할 위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양동욱의 S스토리



양동욱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인간의 성이 종족보존에서 쾌락추구로 변화하면서 성행동의 표현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이 추구하는 성행동이 과연 정상이나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역사적 흐름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적 잣대를 들이밀기 어렵다. 또 어떤 성행동이 한 개인에게는 정상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관찰하거나 함께 공유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다분히 상대적이다. 그래서 성행동의 정상을 논할 때 하나로 일치된 견해보다도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한다.

먼저, 대부분 사람이 행하고 있는 성행동은 정상이다. 이를 통계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성행동을 하나의 분포로 보고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성행동을 비정상적으로 본다. 예로, 혼전순결을 지키려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통계적 기준에서 비정상적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성행

사랑에서 벗어난 성행동

동이 개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어떤 성행동이 개인에게 편안함, 즐거움, 만족을 준다면 심리적 기준에 의해 정상이다. 배우자가 다양한 성교 체위를 요구하는데, 반대성욕자가 아니라고 상담을 해오는 사람은 배우자의 성행동이 심리적으로 불편을 주기에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경우이다.

성행동을 통한 만족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만족 역시 고려해야 하며, 또 그 행동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나 사회의식을 헤아리는 것을 사회적 기준이라고 한다. 두 성인이 서로 동의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성행동을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정상이다. 하지만 서로 동의했다라도 한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성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비정상이다.

법적 기준도 개인이 어떤 사회 문화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넘어서 성행동에 관해 정상 여부를 논할 때 법체계적으로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발행하고 있는 DSM(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을 참고한다. 2013년에 발행된 DSM-5에서는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 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범주에서 이성(異常) 성행동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그 범주에는 크게 관음증, 노출증, 성적

피해성, 성적 가학성, 마찰 도착증, 물품 음란증, 복장 도착증, 소아 성애증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나 나체 혹은 성교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성적 흥분을 경험한다. 노출증은 자신의 생식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그러한 기대조차 지 않았던 사람에게 노출하면서 성적 흥분을 경험한다. 이들은 생식기를 본 상대의 깜짝 놀란 반응이나 생식기 노출을 아무에게 들키지 않고 완수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낀다.

성적 피해성은 성적 상대로부터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경멸이나 고통, 학대를 받으면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적 가학성은 이와 반대로 성적 상대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가학성의 어원은 프랑스의 작가 가 마조흐(Masoch)인데, 유년기에 헛간에 묶인 여성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후 피학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생을 마감하였다.

마찰도착증은 사람이 본래는 자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몸을 비

비는 행동을 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이들은 사정할 것을 대비해 속옷이 찢지 않도록 성기에 비닐을 씌우기도 한다. 물품음란증은 속옷, 신발, 양말처럼 살아있지 않는 것 또는 손, 발, 엉덩이 등 신체 일부에 집착한다. 속옷에 흥분하는 사람은 깨끗한 것보다는 착용했던 속옷의 냄새를 맡으며 미지의 이성을 떠올린다. 복장 도착증은 이성의 옷차림을 하고 성적 쾌감을 얻는데, 이성의 속옷만 갖춰 입는 사람부터 견모수까지 완전히 이성으로 변장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소아기호증은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으로 대부분 사회에서 형벌로 규제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형과 그와 함께하고 싶은 성행동에 관한 본능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러브맵(lovemap)이라고 한다. 그것이 환상에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연인 관계에는 서로의 러브맵이 상호작용하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정상범주에서 벗어날 때 반대성욕으로 여겨진다. 앞서 말한 반대성욕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성행동을 표현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거나 친밀한 상대가 아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은 성행동이 아니다. 동의를 얻더라도 서로에게 해를 주고받는다. 결국, 반대성욕은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열망하는 사랑에서 벗어난 성행동이다.

기고

‘통합의학박람회’에서 건강을 챙김시다



윤승중  
장흥군 부군수

최근 10년간 지방환자가 수도권 병원을 찾는 경우가 1.5배, 진료비는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방에서 수도권 병원을 찾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암을 비롯한 난치병의 치료를 보장받기 위한일 것이다.

사실 죽을병(?)에 걸려 명의를 찾아가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역사적인 명의를 동의보감의 허준이나 사상의학의 이재파 등을 들 수 있고 현대의학의 명의를 각 분야별로 수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명언이 있

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삶이 과거처럼 노동지향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는 것을 옛날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식습관에서부터 운동량,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발병의 경로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치료도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를 찾기 이전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예방적 측면과 치료나 수술이후에 회복과정도 매우 중요한 의과과정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론이 없다. 다만 현행 의료법 체계가 이러한 인간중심의 전인적 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전남도와 장흥군에서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물론 통합의학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이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에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통합적으로 접목하여 환자에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포괄적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치료인 것이다.

사실 큰 병을 앓은 사람은 수술하고 방

사선치료, 재활치료 등등 수술 후가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후 먹지 못하는 것, 운동하는 것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더해주는 보완대체요법이 필요한 시점임을 암 환자 가족들은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장흥군 천관산 일원에서 22일부터 1주일간 펼쳐지는 통합의학박람회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었고 그 뿌리가 이미 내리고 있다. 먼저 장흥에 통합의학센터가 연내에 착공된다. 연구중심의 센터로서 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반을 정면에서도 인정하여 오는 2016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승인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드랜드, 보림사 선문화 등과 연계하여 자연을 통한 힐링센터의 중심지로 장흥이 주목받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참고로 국제박람회는 2016년 9월29일부터 10월 31까지 33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40개국이 참여하여 통합의학 관련 국제교류와 검진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

통합의학관, 20개의 건강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건강체험관을 비롯하여 명사, 명의 강연, 약선요리관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중국의 장시성 중의약대와 황체검진은 임소숙이 나있는 분야.

이 기간중에 이루어지는 검진은 모두 무료다. 건강도 챙기고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천관산의 역사가 은빛물결 치는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과 통합의학의 의미를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 특히 이 행사는 대한통합의학회, 대체의학회, 한국자연치유학회 등의 주관하에 심포지움 등의 학술행사는 물론, 유와송 교수 등 명의의 강연이 있어 관심있는 분들의 뜨거운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라는 점을 강조된다. 이런 관점에서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에 참여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의학적 상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질병치료를 대한 식견을 넓혀 건강 100세 시대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社說

한빛원전 증기세관 사고 철저히 규명해야

최근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전열관) 누설과 갑작스런 ‘자동정지’는 사전점검 부실과 운전자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원전안전에 대해 수 없이 지적했음에도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누설사고를 빚은 3호기보다 4호기가 세관운영이 더 심각하다는 보고까지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 계통에서 아르곤과 제논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에 따른 누설 징후라고 한다. 원전 측은 방사능의 외부 누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력을 줄이며 운전 정지를 해야 한다. 또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진상과 함께 안전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선동열 재계약 파문, 냉정하게 극복하자

KIA타이거즈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남긴 선동열 감독과 재계약하면서 팬심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선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난 3년 동안 팀 성적은 2012년 5위, 2013년 8위, 올해 8위로 내리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때문이다.

KIA타이거즈는 19일 선 감독과 2년간 10억6천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 재신임을 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팀 체질 개선에 실패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은 구단 측과 선 감독에 대해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 감독은 재임 기간 추축 선수 대부분이 부상에 시달려 선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고, 야수진과 마운드의 세대 교체 실패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 최고 투수 출신에 삼성 감독 시절 필승 불펜을 구축한 선 감독에게 투수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기존 선수와 노장을 제외하고는 제대

로 된 선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 감독도 책임을 인정하고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밝혔지만 팀 여건상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이스인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고 안치홍, 김선빈 등 추축 선수들이 큰 기대를 하면서 내년 시즌 전망이 더욱 어둡기 때문이다. 여기에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팬들의 마음을 잡는 것도 큰 과제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1982년 프로 야구 출범 이후 해태타이거즈의 뒤를 이어 코리아시리즈 10승 제패라는 금자탑을 쌓으면서 호남 사람들과 애환을 같이해 왔다. 타이거즈는 군사독재 시절 그야말로 희망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IA와 선 감독은 팬들의 질타를 무릅쓰고 아프게 새겨야 한다. 팬들 역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책임은 언제나 물을 수 있다.

無等鼓

대한민국에 딱 9명만이 가진 직업은 프로야구 감독이다. 내년 KT위즈 조병현 감독이 새로 프로야구 리그에 참가하더라도 10명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총리 등 한 명뿐인 직업을 제외하곤 가장 적은 수의 직업군일 것이다. 권력 집단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300명이나 된다.

9명만이 가진 직업인만큼 프로야구 감독의 권한은 막강하다. 최고 5억 원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이며 3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별도로 최고 7억 원의 보너스도 챙긴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크다. 최근 3년간 승용차에 법인카드도 제공한다. 급여조건이 전부가 아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해군 제독과 함께 남성이 선명하는 3대 직업이 프로 야구 감독이다.

전장의 장수와 비교되는 막강한 권한은 단연 압권이다. 녹색 그라운드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된다.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이 다른 종목에 비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은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에 있다. 야구의 매력이자 경쟁력은 작전을 씌

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 있다. 농구는 1만가지의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작전이 복잡해 선수나 해설자가 아니면 어떤 수를 펼치지지 알아보기 어렵다. 축구는 순간순간 감독 판단이 개입하기 어렵고 교체카드도 많지 않다.

그러나 야구는 감독이 판단한 작전의 성패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때 투수 교체를 안했는지, 도루 시도는 무리하지 않았는지, 팬 한명 한명이 비평의 날을 세울 여지가 높다. 프로야구 감독이 어려운 이유다.

가이타이거즈가 선동열 감독과 재계약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3년간 팬들에게 한번도 가을야구를 선물하지 못했는데 연봉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3억8000만 원에 2년간 재계약했다.

1년 이상 해태와 가이를 지휘한 감독 중 유일하게 팀을 포스트시즌에 올려지 못했다. 승률도 최악인 감독에 대한 대우로는 파격적이다. 재계약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할?’이다. 타이거즈 팬들은 프로야구 경기를 통해 풀어왔다. ‘할’이란 한탄에 공감이 간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 고 매 개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